

#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5, 유신론적 주장, 4부, 유신론적 믿음의 실용적 정당화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유신론적 주장, 파트 4, 유신론적 믿음의 실용적  
정당화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든, 존재론적  
주장의 경우 선험적 증거 또는 신에 대한 개념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든,  
증거 기반인 신에 대한 여러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범주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더  
실용적이거나 신중한 것으로, 신에 대한 증거와 신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든 신을 믿고 그 믿음을 전제로 삶을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명하거나 합리적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 실용적 정당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19  
세기 후반의 윌리엄 클리포드라는 사상가가 한 주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기본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클리포드의 원리로 알려진 이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항상 틀렸고, 누구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클리포드에 따르면, 그것은 당신과 내가 합리적인 존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믿는 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옳을까요? 처음에는 완전히 합리적인

원칙인 듯하고 우리 모두가 따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좋은 증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믿음을 갖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클리포드를 포함한 많은 종교적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합리적 믿음의 기본 원리라고 확언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종교적 신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많은 종교적 회의론자들은 이 원리에 기반하여 유신론에 대한 비판을 했고, 신에 대한 믿음은 항상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을 만한 증거가 항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클리포드의 원리가 실제로는 자기 모순적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클리포드 원리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정말 있을까요? 클리포드 원리에 대해 어떤 종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리고 모든 경우에 충분한 증거에 근거해서만 믿어야 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클리포드 원리는 그 자체의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반대 의견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믿음은 증거적이지 않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가 중 두 명은 블레즈 파스칼과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파스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17세기에 살았던 수학자였는데, 실제로는 변증학의 대작이 될 만한 것을 모으는 과정에 있는 동안 매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수백 페이지의 노트를 모았는데,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과 종교적 믿음에 대해 그가 내린 매우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관찰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논문과 노트는 수집되었고, *Thoughts, Pulse of Pascal*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의 *Pulse*에서 그는 어느 시점에서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기 논증으로 알려진 것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에 대한 증거가 어느 쪽이든 결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결정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50%인 것처럼 보인다면, 증거는 있지만 신에 반대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목적론적, 존재론적 주장은 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 신의 은폐 문제, 반증으로 보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 파스칼은 내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죠? 내기를 해야 합니다.

신의 말이나 신이 아닌 말에 베팅할 건가요? 글썄요, 결국에는 둘 중 하나가 이길 겁니다. 신이 있든 없든. 파스칼에 따르면, 합리적 움직임, 신중하거나 실용적으로 합리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신에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으므로, 저는 여기 표로 표현한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으며, 옳거나 그르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에 따라 산다면, 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당신이 이 믿음을 굳게 믿거나 헌신한다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신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신이 존재한다면, 다음 생에서 당신에게 뒤따를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 즉 무한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이 결과이고, 신의 존재에 대해 믿고 옳은 사람들의 축복된 상태입니다.

아니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글썄요, 결국, 당신이 죽으면 의식이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의 삶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당신은 실제로 약간의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당신은,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난잡한 생활 방식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 강한 약물에 관여하거나, 특정한 쾌락에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원했을 때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당신은 불편을 겪었지만, 그저 약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을 일정 수준의 자제력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그러니 신을 믿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종교 신자에게는 순손실입니다.

글썄요, 이제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무신론을 택하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가능한 두 가지 결과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틀렸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우리는 무한한 불행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세로 가게 되고, 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어쩌면 영원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지 누가 알겠나. 끔찍하고 극단적인 종류의 상실이고 극심한 불행이야.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약간의 즐거움만 더 얻었을 뿐이야.

다시 말해서, 그 중 일부는 해로울 수 있지만, 논쟁을 위해 무신론자이고 그것에 대해 옳았기 때문에 적어도 약간의 순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비교하게 되면, 유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이고 각 경우에 따라 사는 것은, 만약 당신이 유신론자라면 무한한 이득을 얻고, 당신이 옳든 그르든 각각 약간의 손실만 있을

것입니다. 무신론자에게 옳든 그르든, 당신이 옳다면 약간의 추가 재미만 있고, 당신이 틀렸다면 무한하거나 극심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마장에 가서 두 마리의 말 경주에 베팅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중 한 마리가 백만 대 1의 배당률로 출발하고, 그 말, 즉 신의 말에 2달러를 베팅하면 2백만 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승하면, 그 말이 지면 2달러만 잃게 됩니다. 다른 말은 2달러를 얻으려면 백만 달러를 베팅해야 합니다.

무신론 말입니다. 그럼, 두 말 중 어느 말에 베팅할 건가요? 아시다시피, 두 말이 이길 가능성이 비슷해 보인다면요? 무신론 말에 베팅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신 말에 베팅해야 합니다.

몇 달러만 베팅하면 수백만 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스칼에 따르면 베팅의 기본 논리입니다. 신중하게 현명합니다.

이 삶에서 각각의 보상을 감안할 때, 신에게 내기를 걸고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제 윌리엄 라이칸과 아서 슐레진저라는 철학자가 25년 전에 *You Bet Your Life, Pascal's Wager Defended*라는 기사를 썼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 생각에 도움이 되고 통찰력 있는 방식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Pascal's Wager*에 대한 매우 표준적인 불만입니다.

그 중 하나는 내 믿음이 내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믿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백만 달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손을 들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백만 달러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손을 들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믿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다른 많은 것들처럼 당신 안에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요,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만, 증거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그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글썄요, 라이칸과 솔레진저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파스칼과 다른 사람들, 라이칸과 솔레진저는 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통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것처럼 그들이 행동 치료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역이지만, 제임스는 종교적 믿음을 언급하면서, 교회에 가고, 미사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보라, 진실한 믿음이 와서 당신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특정한 믿음을 바꿀 수 없더라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녹색 셔츠를 입고 있다고 합시다. 그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모든 종류의 신념에 대한 특정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후에 재즈 음악을 매우 사랑하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주겠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재즈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클래식 록이나 컨트리 음악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재즈는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그 제안을 들었다면, 내년 이맘때 그들이 정말 재즈에 관심이 있고 재즈를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에게나 5만 달러를 줄 것입니다. 당신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가서 데이브 브루벡, 존 콜트레인, 마일스 데이비스와 모든 종류의 훌륭한 재즈 음악을 사서 재즈에 대해 듣고

배우고, 재즈에 대한 책을 읽고, 모든 종류의 재즈 클래식을 듣고, 재즈에 대한 취향을 개발해서 1년 후에 정직하게 “그래, 정말 재즈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진짜 취향이 생겼고, 지금은 솔직히 재즈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만 달러 수표를 받겠습니다. 라이칸과 솔레진저가 제안한 것과 비슷한 행동 치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불확실하더라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간접적으로 당신의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또 다른 반대 의견은 내기가 냉소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맨손으로 내기하고 즐거운 영원한 존재를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한다면 신이 심판의 날에 누군가에게 보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이칸과 솔레진저는 마지막 반대 의견을 다른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즉, 우리는 믿음에 대한 원래의 성향보다 더 진실한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당신은 적어도 가능한 한 냉소주의를 버리고, 영원한 보상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점까지 더 진실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심으로 신을 사랑하고 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가 거기에 있고 그가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온갖 축복을 주었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반대 의견을 처리한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파스칼이 이것을 50%의 가능성, 즉 거의 동등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동등한 확률이 아닙니다.

신이 없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것입니다. 일부 회의론자에 따르면 유신론이 사실일 가능성은 10% 또는 15%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이칸과 솔레진저는 우리가 여기서 무한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마리의 말 경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의 말이 10 대 1의 확률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한 마리의 말이 다른 말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신론 말은 약자이거나, 이 경우 기술이나 속도 면에서 열세일 수도 있습니다.

기수가 무신론자 말만큼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신의 말에 베팅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백만 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느린 말일지라도, 이 경우 유신론 쪽에 증거가 적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말에 베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이긴다면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가능한 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신이 수천 개의 다른 신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다른 세계 종교, 10개 또는 12개의 주요 세계 종교, 그리고 온갖 종류의 하위 종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종교적 전통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지지하거나 헌신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라이칸과 솔레진저는 여기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경험적, 특히 역사적 고려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종교적 전통을 객관적으로 덜 존경받거나 신이 실제일 가능성이 낮다고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진지한 선택권을 몇 가지 주요 종교적 전통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각의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종교적 전통에 따르면, 적어도 특정 형태의 불교와 같이 내세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관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적 전통은 포용주의적이거나 다원주의적입니다. 힌두교는 종교적 고수에 대한 믿음의 헌신 측면에서 매우 관대한 반면, 이슬람과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교적 전통은 그들이 지닌 믿음에 따라 천국에 갈 사람에 대한 측면에서 훨씬 더 편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 주요한 유신론 형태로 축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소수의 종교적 전통으로 축소한 다음 거기서 선택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자란 종교적 전통에 비추어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유신론적 전통을 선택할지에 대한 일종의 내기를 만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변덕스러운 믿음에 가장 관용적이지 않은 전통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게 파스칼의 내기이고, 라이칸과 솔레진저가 고려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찬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윌리엄 제임스가 부르는 대로 믿으려는 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실용성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주로 19세기 후반에 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의사로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심리학의 표준 텍스트였던 *Principles of Ethics*라는 두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자적 경력이 계속되면서 그는 종교 연구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0년이나 1901년경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기포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 강의는 그 제목의 책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종교적 경험에 대해 읽은 책 중 가장 훌륭하고,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것은 그 분야의 표준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꽤 엄격한 경험주의자였지만 종교적 신념에 점점 더 동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점점 더 동정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포드 강의를 위해 이 강의를 개발하는 데 한 작업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는 데 있어 그에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쓴 *The Will to Believe*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믿음의 형성과 관련하여 증거 검토에 이성만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성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는 우리가 믿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에 관련되고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본질에 관해 몇 가지 구별을 합니다. 그는 선택이 살아 있거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자에게 특정 옵션 세트가 감정적으로 어필하는지 여부에 따라 살아있는 선택과 죽은 선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강요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을 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디저트로 케이크나 파이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디저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요된 선택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중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주어진 선택이 중요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매우

중대한 선택이며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에서 침실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는 실제로 중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종교적 가설이나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물어보죠. 어떤 종류의 선택일까요? 종교적 가설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옵션을 제시할까요? 글썄요, 신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는 확실히 감정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중대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그것은 강제된 선택입니다. 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한 강제된 결정이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미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의 입장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회의론자가 되는 것은 종교적 믿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가설은 살아 있고, 강요되고, 중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증거가 우리를 한 방향으로 확실히 이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종교적 헌신을 향해 가거나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제임스는 우리의 열정적인 본성이 지적 근거로 본질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진정한 선택사항일 때마다 합법적으로 명제들 사이에서 선택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정적인 본성은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에 따르면, 종교적 가설과 같이 살아 있고, 강요되고, 중대한 선택사항에 관해서는 적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만, 우리는 이성에 의해 결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진실에만 동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윌리엄 클리포드 등이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 제기할 이의일 것입니다. 증거에

의해 결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진실에만 동의해야 합니다. 항상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만 믿어야 합니다.

클리포드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의 답변은 사고의 규칙이 제가 어떤 종류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진실들이 사실이라면, 비이성적인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 추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진실 추구에 대한 우리의 지침은 우리가 그 지침을 따른다면 어떤 진실에 대해 눈이 멀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제한된 시야 때문에 우리가 가진 특정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증거 없이 믿는 것이 관참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임스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요점은 믿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종교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인과율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모든 결과가 반드시 원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흄의 결론은 우리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연결, 또는 인과관계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을 결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동물적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연의 균일성에 대한 믿음, 즉 태양이 내일 뜬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양이 내일 뜬다고 믿고, 심지어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깨어 있고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각이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가 있고 지금 깨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기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순간에 깨어 있고, 깨어 있고, 매우 생생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선명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글썄요, 어젯밤에 꿈 그 악몽도 마찬가지로였고, 당신은 너무 무서워서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침입자가 집에 침입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 꿈의 맥락에서, 당신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신앙의 조항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음,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처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자동 기계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경험한 유일한 생각과 감정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관해서는, 당신은 그것들이 진짜라고 가정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글썄요, 저는 제 생각과 감정이 제 행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유추적 근거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사례에서 80억 가지 사례로 추론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형편없는 귀납적 논증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신에 대한 유추적 논증은 아무리 나쁘더라도 가장 강력한 논증인 듯합니다. 그래서 철학 분야에서 아무도 결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정신 외에 다른 정신이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조항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여러분이 이 모든 매우 두꺼운 신앙적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신념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아니요, 저는 감각적 경험에 근거해서만 믿습니다. 저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라면, 저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심으로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자연은 균일하며, 태양은 내일 뜨고, 자연의 법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여러분의 감각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고 꿈을 꾸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신앙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에 아무리 강경한 경험주의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과학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신앙에 대한 헌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인간 상태의 기본적인 부분일 뿐인 듯하고, 우리는 믿음에 대한 헌신을 해야만 하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서 지내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매우 실용적인 혜택이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헌신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믿음의 실용적 정당화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유신론적 주장, 파트 4, 유신론적 믿음의 실용적  
정당화입니다.